

 해양수산부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21. 9. 29.(수) 총 3매(본문 2, 참고 1)	
담당 부서	항만개발과	담당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장 이상호, 서기관 우봉출, 주무관 장현수 • ☎ (044)200-5935, 5936
보 도 일 시		2021년 9월 30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9. 29.(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동해항 주변 지역 비산먼지 점차 줄어나간다

- 해수부, 동해항 방진형 임항창고 준공 등 환경개선사업 지속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벌크화물(석회석, 석탄 등)을 주로 처리하는 동해항 주변지역의 비산먼지 피해를 줄이고, 항만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동해항 서부두 방진형 임항창고 신축공사’를 9월 30일(목) 준공한다고 밝혔다.

1979년에 개항한 동해항은 국가기반산업의 원자재 공급항만으로서 운영되고 있는데, 주거 밀집지역과 가깝고 주로 석회석, 석탄 등의 벌크 화물을 취급하여 비산먼지 유발 등 대기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4월부터 옥외 야적장으로 운영 중인 동해항 서부두 배후부지에 총사업비 102억 원을 투입하여 약 8천㎡ 크기의 방진형 임항창고 1동을 신축하였다. 이 창고는 벌크화물의 특성상 부득이 하게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1차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하므로, 화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을 획기적으로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항만이용자들이 다양한 화물을 취급할 수 있도록 창고를 4개의 공간으로 분리하여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화물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을 줄이기 위해 창고 내에 출입차량용 세륜시설도 별도로 설치하였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동해항 주변의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부터 동해항 내부에 완충녹지 조성, 세륜·살수시설 및 방진벽 설치, 하역장비 개선 등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를 통해 동해항 인근 송정동 마을의 미세먼지(PM-10) 농도가 2013년에 비해 절반 가까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동해항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해당년도 6·9·12월 측정치 평균값)
(’13) $39.4\mu\text{g}/\text{m}^3$ → (’17) $32.5\mu\text{g}/\text{m}^3$ → (’18) $31.7\mu\text{g}/\text{m}^3$ → (’19) $27.2\mu\text{g}/\text{m}^3$ → (’20) $21.1\mu\text{g}/\text{m}^3$

이상호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 “앞으로도 동해항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여 동해항이 친환경 항만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공공저작물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	---

참고

동해항 서부두 방진형 임항창고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동해항 내(서부두) 방진형 임항창고 신축으로 환경공해 저감 및 항만이미지 개선
- (규모) 창고 1동(연면적 8,181m²)
- (사업기간) 2020.4 ~ 2021.9 / (총사업비) 102억원

□ 위치도 및 조감도

